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흔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2)

제1독서

집회 27,30-28,7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화답송

시편 103(102),1-2.3-4.9-10.11-12

(◎ 8)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2독서

로마 14,7-9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

마태 18,21-35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썸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 24 임금이 썸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 34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복음 묵상

마태오 복음에서 교회는 하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형제적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흔히 ‘교회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마태오 복음에서 ‘형제애’란,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한 끝없는 용서와 화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이를 사고파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빚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로
뒤바뀐 이 불행한 이야기는 26절부터 급격한 반전을 보여
줍니다. 종이 엎드려 애원하니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약속도 없이 주인은 종의
간절한 청을 기꺼이 들어준 것입니다.

주인의 자비는 주인이 ‘빚’이 아니라 ‘부채’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빚’(오페이레테스)은
상당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죄책감마저 담고 있는 단어인
반면, ‘부채’(다네이온)는 상호 동등한 경제적 거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형제적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빚을 탕감받은 종의 무자비함에서 불행은 다시
불거지는데,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동료’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신틀로스’인데, ‘신틀’
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지요. 함께해야 할
사람을 감옥에 내던지는 이의 냉혹함은 주인의 자비로움과
대비되어, 보는 이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는 저마다 사는 처지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도 서로
형제로서 책임을 함께 지는 데 그 본디 가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빚이 있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살아간다는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돈 몇 푼에 살의마저 느끼는
살벌한 세상에 교회의 형제애는 눈물겹도록 요긴한 신앙인의
책무입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교황, ‘창조 시기’ 메시지 발표

〈9월 1일-10월 4일〉

가난한 이 돌보며 주님과 관계 회복해야
하느님 · 피조물과 깨어진 관계 새롭게 복구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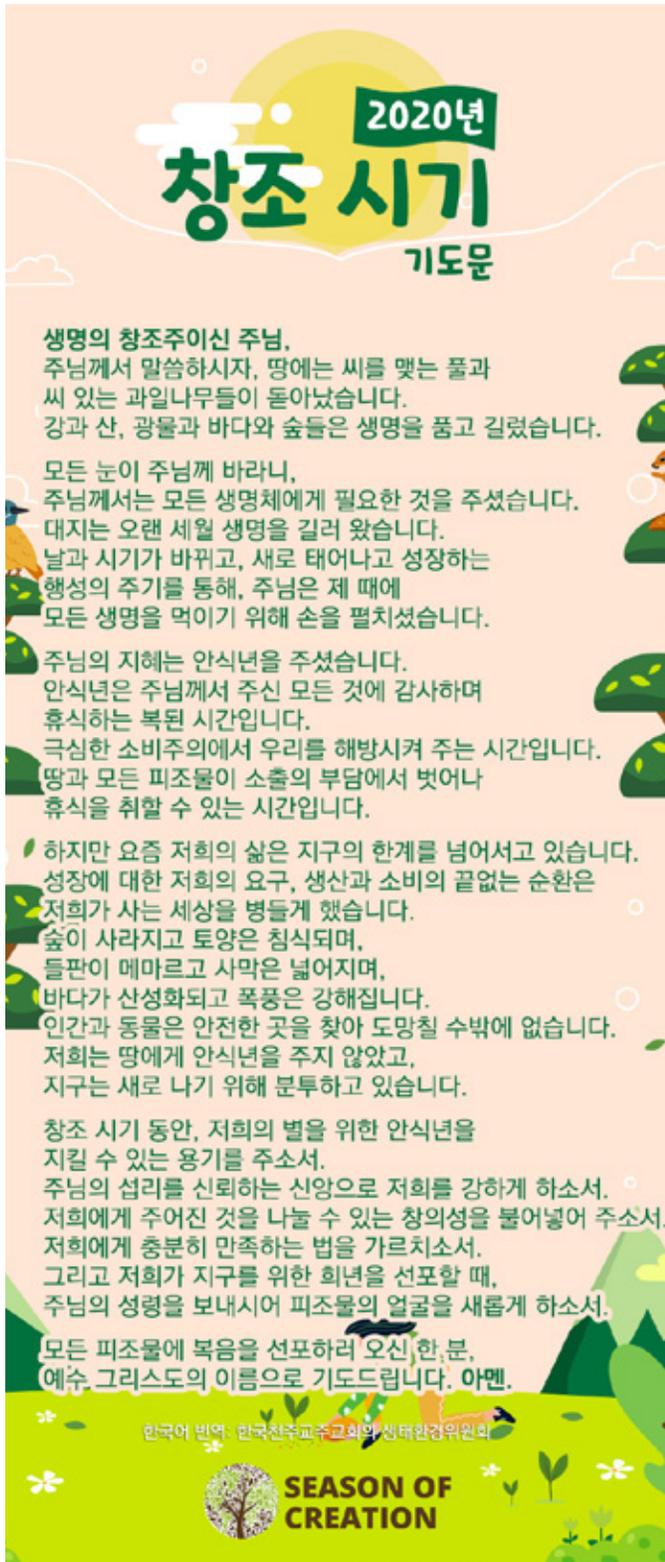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지구 자원을 약탈하고 갈취한 행위에 대한 정의가 실현돼야 하며,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황은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The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창조 시기(Season of Creation)**를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 시기는 하느님 및 피조물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보수하고 복구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교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결과로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의료, 사회,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 채무 면제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며 창조 시기 활동을 조직하는 교회일치 조직위원회는 올해 활동 주제를 ‘지구를 위한 희년’으로 정했다.

교황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은 “**기억하고 돌아오고 쉬고 복구하고 기뻐하는 성스러운 시기**”라고 말하고, 창조 시기에는 “사랑의 일치로서 존재하고 번성해야 할 피조물 원래 성소를 기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와 형제자매와의 관계,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구를 위한 희년은 “**인간 특히,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살피며 하느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복구하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희년은 억압받고 다양한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 굴레에 갇힌 모든 이들을 해방하는 시간”이라면서, “인류에게 상호연결된 삶의 주재자가 아니라 일원으로서 올바른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생물다양성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이 입는 부당한 피해, 이 모든 것이 우리 무절제한 탐욕과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고 지적하고 “인간은 지구 자원에 대한 과도한 소비와 지구를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요구와 무한한 생산과 소비 순환이 자연 세계 씨를 말리고 있다”면서, “산림이 침출되고, 표토가 부식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폭풍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개발할 기회를 줘 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세계교회협, 코로나19 공동 대응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8월 27일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고 그리스도인은 종교간 연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와 WCC는 이날 「종교간 연대로 아픈 세계에 봉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은 서문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났으므로 우리는 선의의 사람과 다른 종교인에게도 열린 포괄적 연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성찰과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요청’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문서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많은 다른 상처를 입은 세계에 봉사하려는 욕구에 영감을 주는 종교간 연대에 대한 그리스도교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24쪽으로 된 이 문서는 일련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인에게 “다름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문화를 촉진하라”고 요청했다.

WCC는 1948년 설립된 전 세계 교회일치 단체이다. 가톨릭교회는 이 단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이 단체의 회의에 공식 옵저버(참관인)로 참여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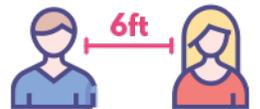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목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

- 가톨릭 신문 미주판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9월 20일자를 끝으로 폐간됩니다. 구독료가 남은 구독자들은 아래와 같이 환급 금액을 알려드리니 체크에 적을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1937)
- LAST DATE : 10/31/2020
- Refund Amount(2.55X4 weeks) : **\$10.20**
- 이메일 : ctimesusa@gmail.com
- 전화번호 : 323-351-7788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4주 주간: 애가 1-5, 1베드 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9월 6일(연중 제23주일)

주일헌금.....	\$1,424.00
2차헌금.....	\$593.00
교무금.....	\$13,305.20
교무금(크레딧카드).....	\$3,660.00
감사헌금.....	\$1,165.00
합계.....	\$20,147.2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9월 16일(수) 오전 6:15-6:45 | 9월 19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위대한 발원 투탕카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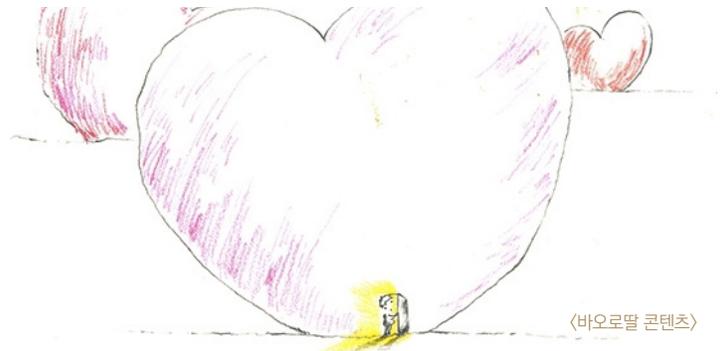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9월 17일(목) 오후 5:00-6:00
9월 18일(금) 저녁 8:00-9:00
9월 20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변화와 도전 2**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신나무골 성지**



(바로로말 콘텐츠)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마태오 18,22 -

Not seven, I tell you, but seventy-seven times.
- Matthew 18,22 -